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일상에서의 생활형 중독에 관한 풍자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대 수

일상에서의 생활형 중독에 관한 풍자적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7월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대 수

인 준 서

김대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이 작품으로서 본인에게 의미를 지니게 할 것인가?

예술작품은 실제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개인의 총체적인 삶과 가치관에 표현의 매개로 사용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멜빈 레이더(Melvin Rader)¹⁾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적 가치를 논하며 “미적인 것은 도처에서 보고 있듯이 인간 본성의 깊은 관심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예술이란 일상생활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했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일상은 삶을 지속시키는 필요요소이면서 탈피를 갈망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상의 삶을 풍자적이며, 관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단면을 보고자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작품의 제작 동기와 본인의 시각을 기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현대생활의 일상성에 대한 정의와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형 중독의 개념을 짚어보고 그와 관련된 작품의 형태를 의미화 하였고, 표현된 작품의 제작의도와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작품설명에 대한 각각의 표현방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일상에서의 생활형 중독을 다룬 작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1)멜빈 레이더(Melvin Rader)는 워싱턴 대학의 철학과 명예 교수로 제직 중이며, A Modern Book of Esthetics 등 많은 저술 화동을 하고 미국 미 학회장 및 미 학회 태평양 분 회장을 역임 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본론 | 2 |
| 1. 작품의 형성 배경 | 2 |
| 1) 일상성의 의미 | 2 |
| 2) 예술에서의 일상성 | 5 |
| 3) 생활형 중독 | 7 |
| 2. 작품표현방법 | 9 |
| 1) 일상의 이미지 | 9 |
| 2) 풍자적 표현 | 10 |
| 3. 개별 작품 분석 | 12 |
| III. 결론 | 30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술은 존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들어내며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작업의 소재를 일상에서 찾는다고 할 때, 예술가가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곧 우리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술은 현실적이며 상징적이다.²⁾ 이는 작품을 통해 현실의 진정성을 돌아보고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이 가지는 불안감과 무료함은 현대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불안요소이다. 이 일상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된 습관과 취미라 불리는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통해 그 일상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여러 행위들, 흡연, 음주, TV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또한 일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자적 시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일상을 소재로 하여 삶의 단면을 드러냄으로써 자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취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예술의 모습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성을 들여다보고, 그 일상 안에서 이뤄지는 습관적 행위들을 실제 사물과 이에 대비되는 축소된 인간상을 풍자적인 모습으로 조형화하였다.

2) 박 준원, 『예술노트』 미술문화 1995. p112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일상성의 의미

일상성이 학문과 예술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발전을 이룬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할 즈음이다. 그 전 시대까지는 종교에 의한 인간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자신의 몫을 해내고, 그 안에서 긍정적 미래를 낙관하도록 종용받던 시대로, 대중들은 사회진화의 한 축으로 기능의 역할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대전을 고비로 퇴조하게 되었다. 대신 지난 시대의 낡은 유물적 사고에 묻혔던, ‘일상성’이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처럼 변화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 맺는다.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일상은 사소한 행위나 사건, 현상 등을 모두 망라한 관련맺음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반응이라도 모두 일상 안에 귀속된다. 그러나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³⁾에 의하면 이러한 일반적 일상,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일,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반복적인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어도 거기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나른하고도 불안한 일상성은 없었다. 이러한 농경

3)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는 프랑스 공산당 이론가로 현대사회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라 명명하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의한 인간소외’가 오로지 영구 문화혁명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말년에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들에 주목하여 일상성의 문제, 도시문제, 인공지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사회의 일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⁴⁾이라고 현대성과 일상성을 연결 짓는다. 이처럼 일상적 행위는 과거나 현재, 현상이나 사건,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현대성과 일상성이 어떤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존재하는지 고찰해보면, 현대적 일상은 욕구에 의해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공간으로 만족과 안락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과 박탈감을 생성시키는 모순적 공간이다. 이러한 욕구의 공간을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⁵⁾는 거대한 ‘소비사회’라 지칭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비행태를 보다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현대의 일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을 그대로 잉태하는 공간이자 자본주의의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은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안에서 현대성은 과거의 일상과 차별화되는 의미의 담론이다.

그렇다면 르페브르나 장 보드리아르의 현대사회 안에 이뤄지는 ‘일상성’은 어떠한 특징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다수 인구의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져다준 기본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해결로 인한 기본 행복추구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대다수 인구의 걱정거리였던 기본 욕구의 해결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현상으로 이어지는데, 현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품의 소비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장 보드리아르는 이 거대한 소비사회의 주체자로서의 구매자들의 욕구는 각각의 사물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력’

4)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박정자 역 p15

5)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빠짐없이 언급 되는 사상가중의 한명이다.

으로서의 생산력의 보다 일반적인 틀 속에서 전체적인 처분능력으로서 생산되는 현상이다.⁶⁾ 이는 소비의 주체로서의 구매자의 능력이나 욕구에 따라 상품화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즉 소비를 조장하고 재화를 분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주체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는 광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사회 일상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것이 상품인 세상에서 광고가 가지는 막강한 힘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담론이나 이슈, 유행 등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또한, 르페브르는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힘의 원천으로서 기술 관료의 발달을 지적하면서 문제시 되어 보이지 않는 사회의 흐름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안정감을 가지지만, 대신 적극적인 주체성을 상실한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19세기까지 지속되어온 근대적 합리성에 의해 조직화되고 발달되어온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구성원들 삶 깊숙이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성의 모순을 바탕으로 일상성을 되짚어보는 것이야 말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시각화하는 일들은 그 시대에 속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중들을 포함한 예술가들의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의 문제이며, 예술과 삶의 괴리를 줄이고자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서 본인은 다음 장에서 ‘일상성’이 현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중요한 미술사적 가치를 가지는 예술 행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6)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소비의 사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임문영 역p101

2) 예술에서의 일상성

예술에서 일상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팝아트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의 팝아트는 일상의 모습이 소재의 대상적 차원을 넘어 ‘일상성’ 자체가 작품의 주가 된다.

물론 그 중심에는 급속한 현대화로 이어지는 대량 생산화 된 물적 공급과 소비, 매스미디어에 의한 문화의 다변성은 기존의 모더니즘이 차지했던, 작품이 마땅히 내뿜어야 할 ‘아우라’의 부재를 대신하게 된다.

이제 달라진 시대의 예술가들은 ‘사물’ 혹은 ‘일상성’을 기존의 예술이 금기시했던 범주를 과감히 차용하게 된다. 우리의 도처에 널려진 대량 생산화 된 산물들, 이를테면 캔 음료수, 상표가 부착된 사물들처럼 소비의 상징은 팝아트와 같은 일상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주요한 작업방식이 된다. 그 안에 익명성을 불어넣는 방식은 기존의 숭고한 정신을 추구하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독자성을 갖게 된다.

팝아트 작가들에게 일상성의 표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있어 작품의 주된 소재가 들과 산, 나무등과 같은 자연물에서 도시의 주를 이루는 인테리어, 빌딩에서 자동차, 신문, 영화 등의 인공산물로 거의 완벽하게 대처되었다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달라진 예술 활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척도가 된다. 이는 기계문명, 대량 생산화 된 소비, 미디어에 의한 물질문명 속에서 현대사회가 가지는 사물과 일상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일상과, 현대사회가 가지는 산물들이 예술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성이 작품의 중심부로 이동한 주된 사례로는 키치를 들 수 있다. 키치는 서두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대량생산과 소비사회의 필연적 결과물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⁷⁾의 ‘아방가르드와 키치’에서 아방가르드의 반대적인 초라하고 불품없는 싸구려 삼류작품들의 총칭이라 폄하하지만 다분히 서구적, 역사주의적, 시각 중심적인 사고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린버그의 가치평하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 사회가 가져온 대량화된 생산과 소비는 키치화된 사물과 작품을 통해 기존의 제한된 감상자들을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키치는 이러한 역할을 중심으로 일상적 모습, 소비자들의 갖가지 형태의 모습들에서 심지어 유행이나 문화전반을 아우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일상성을 보여주는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별다르지 않다. 소비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남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 매체에 중독된 고립된 인물들은 우리사회의 자연스러운 ‘일상성’이라 할 수 있으며, 굳이 키치나 팝아트 적이라는 것에 켜 맞추지 않아도 일맥상통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팝아트나 키치는 산업화된 사회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미술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사조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반영하는 일이며, 미술을 삶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자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인이 일상성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을 통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거나 무심코 흘려버린 생각들로부터 예술과 삶의 간극을 줄이고자하는 시도로 보고자 한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일상성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 ‘생활형중독’⁸⁾을 현대적 의미에서 살펴보고, 작품을 통해 구체화 하고자 한다.

7)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 미술 평론가이며 20세기후반의 미술이론과 실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였으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강한 힘을 실어준 사람이다.

8) 생활형 중독이란? 신조어로서 일반적인 약물의 중독이 아닌 쇼핑, 주식, 인터넷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며 마약, 도박 등의 기존 중독에 비해 신중 중독의 노출빈도가 훨씬 높지만 경각심은 낮은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http://www.naver.com>

2) 생활형 중독

현대사회는 물질과 쾌락이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와 심리적 억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몰입의 상황으로 중독이란 증상이 나타난다.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중 하나가 중독에 관한 것이다.

중독이라는 표현은 약물중독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도박중독 같은 잘 알려진 중독이외에도 TV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행동이나 습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은 ‘중독이란 어떤 즐거운 행동에 습관적으로 열중 하거나 몰두 하는 것⁹⁾ 가리키는데, 이는 과도한 쾌락의 추구로서 쾌락을 주는 중독물질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에의 의존이며 또한 의학적으로도 어떤 습관. 특히, 약물에 대하여 강한 의존성을 나타낸 상태. 즉, 정신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육체적 의존 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긴다. "내성은 중독 행위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양이나 강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금단증상이 생기는데 이는 중독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쾌한 신체, 심리적 증상들을 뜻한다. 더불어 중독된 행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다양한 심리적 속임수들을 사용하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심을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든다."¹⁰⁾

최근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중독증상이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아니라 과도한 특정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조절의 문제

9) 아치볼드 하트(Archibald D Hard), 『참을 수 없는 중독』 두란노, 온누리 회복사역본부 역 2005 p18

10) <http://blog.naver.com>

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되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중독 개념이 현대에는 기존의 약물 중독 뿐만 아니라 생활형 중독이라 부르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의 형태들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중독현상이 있다. TV중독, 게임중독, 성형중독, 핸드폰중독, 다이어트중독, 쇼핑 중독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주부A(37)에게 쇼핑은 존재의 이유이다. 그에게 쇼핑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첫아이의 출산 후유증으로 시작된 쇼핑은 점점 그 수위를 넘어서 명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사서 포장을 안 뜯은 백이 100개는 될 거예요.” 물론 그 댓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카드빚과 남편과의 불화로 이어진다. 또한 쇼핑후의 죄책감은 정신적 우울상태로 나타난다.’¹¹⁾

현대사회가 예전에 비해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인간을 더 많이 엮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중독 현상들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중독의 증상들은 개개인이 무언가에 빠지면 잘 헤어 나오지 못하는 탐닉형 성격, 문제가 닥치면 피하고보는 회피형 성격, 의존형 성격 등은 중독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입시제도, 사교육, 친구들과의 경쟁 등으로 인한 인터넷게임, 악성리플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보인다. 이러한 생활형 중독은 애정결핍, 불안, 우울증, 소외감등과 같은 개인의 내면이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 깊다고 볼 수 있다. 즉 욕구불만, 막연한 불안감, 현실의 모순, 타인의 강요 등이 이러한 몰입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11) 같은 사이트

2. 작품표현 방법

1) 일상의 이미지

일상을 소재로 하는 작업은 이제 흔한 주제가 되었다. 예술가들이 일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일상의 단면을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여러 형태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백화점에서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사로잡히며,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홈쇼핑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습들이 아니며,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몰입의 모습들을 본인의 작품에서는 생활형 중독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고(작품7), 쇼핑에 몰입하며(작품6), 술을 마시는 모습(작품2)등의 우리 삶에 가까운 모습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 본인이 담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내면의 모습들이다.

일상의 모습들을 재현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 그대로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정서적 재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서적 재현’은 단순히 사물이나 자연물, 인간의 형태를 재현하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상황의 이해를 돕고, 다의적인 의미를 통해 총체적인 의미전달 기능을 하고 있다. 많은 현대미술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마도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기에 기존의 일차적 재현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하나의 장면만을 그대로 재현했다면, 기존의 예술이 중요시 여긴 비례감이나, 양감 등이 주를 이루겠지만, 과장된 행위와 표정, 지나치게 마른 몸과 반대로 비대해진 몸 등

은 상황을 다양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한다. 그럼으로 인해 관람자들은 하나의 상황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정서적 표현’을 통해 삶의 불안감과 무료함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작은 몸부림들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2) 풍자적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는 표현 방법으로 인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표현하였으며 그에 대비된 실제 기물들과의 형태상의 조합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의 이미지들을 부각 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핸드폰, 숟가락 등 실제 기물들은 작아진 인체와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위해 포즈 상에서 인체를 의도적으로 팔을 길게 만들거나 굽게 만드는 등의 변형을 주었다.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 행위의 모습이 더욱 극명하도록 드러나게 표현하여 풍자적으로 보이게끔 의도 하였다.

풍자의 미학 사적 개념은 희극적인 것의 장르에 속하며 위트보다 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며 공격적이다.¹²⁾ 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이에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인체는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표현된 약간의 비정상적인 외모를 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런 인물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중압감이 가지는 모순을 표현해 보려는 의도였다.

또한, 작품에서 사용된 오브제는 생활형 중독의 행위들 속에서 사용되어 지는 실제 기물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팝아트이후 보편화된 오브제의 사용은 여러 가지 표현방식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 물론 뒤샹의 실

12) 볼프하르트 헵크만, 콘라드러터. 『미학사전』 예경, 김진수 역 1998 p356

제 변기의 사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예술에서 오브제 사용이라는 표현의 다양성을 가져온 기폭제로 작용했다.

작품 속에서 오브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팝아트 작가들에게는 흔하게 여겨졌던 사물들의 진정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자체가 기존의 예술이 금기시한 요소를 깨고 다양한 관점으로 재현의 입장이 아닌, 사물의 확장으로 인한 대중과 사물 사이의 관계정립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 사용된 오브제는 팝아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 단순히 사물이 사물로서의 가치를 제시했던 팝 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사용된 오브제와 축소되어 표현된 인체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직접성을 지양한 결과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제이기도 하지만 재해석된 인간들이 다시 사용하는 이중적 구조로서의 오브제의 사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재료인 에폭시 레진은 연질의 성향과 일정시간 후 경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레진이 가지는 색채와 강도로 인하여 목조에서 나타나는 끝 터치와 다듬어졌을 때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색채는 반투명한 아크릴 칼라를 통해 그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런 재료의 성질을 이용하여 본인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상 속 생활형 중독의 이미지를 직조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3. 개별 작품분석



[작품 1] # 1

[작품 1] # 1

크 기 : 220 × 240 × 320mm

재 료 : 에폭시 레진, 핸드폰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시대가 발달함으로 인해 핸드폰의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핸드폰 중독의 모습을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세계에만 빠져있는 여학생의 모습을 담고 있다.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행위의 모습을 부각 시키기 위해 인물은 교복이 터질듯이 팍 끼는 모습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였으며 포즈와 색채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표현하였다. 시점은 그 모습을 서서 관망하는 정도의 높이로 설정하였다.



[작품 2] # 2

[작품 2] # 2

크 기 : 400 × 210 × 190mm

재 료 : 에폭시레진, 술잔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누구나 삶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본인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일과후의 한 잔의 술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작품은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포장마차의 한구석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지친하루를 끝내고 한 잔의 술로 마무리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일상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인물의 술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기물들은 비례적으로 약간 축소되어 있으며 실제 기물과의 자연스런 결합을 위해 손을 걸치고 있는 형태를 취하였다. 인체는 부드러운 표면으로 마감하였고 옷은 끝 터치를 그대로 살려 대비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채색은 주로 무채색 계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자와 테이블은 푸른색 계열로 표현함으로써 약간은 밝은 방향으로 보이게끔 의도하였다.



[작품 3] # 3

[작품 3] # 3

크 기 : 530 × 220 × 120mm

재 료 : 에폭시레진, 리모컨

제작년도 : 2005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후 습관적으로 TV를 켜게 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용한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 될수록 본인과 타인과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직장과 단체 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순간 많은 허탈감과 공허함은 현대인들의 주된 현상중의 하나이다. 그런 외로운 현대인은 위안 감을 주는 TV를 시청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독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여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V를 보고 있는 인물의 표현을 통해 외로운 현대인의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수북하게 쌓여 지저분한 재떨이를 주변에 놓음으로써, TV와 외로운 인물의 고립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4] # 4

[작품 4] # 4

크 기 : 200 × 200 × 460mm

재 료 : 에폭시레진, 미러, 마스크라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성형과 외모에 집착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포즈와 의상을 통해 관음증적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인체의 형태는 성형의 전형적인 모습인, 뚜렷하지만 어색한 이목구비와 가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외형적인 형태에만 집착하여 본인을 드러내는 현대의 젊은 사람들의 행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리는 전체 비례에 비하여 길게 표현하였으며 몸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매끈하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뒷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라봄으로서, 정면과 뒷면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 하였다. 이는 바라보는 시점이 관찰자적인 시점임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작품 5] # 5

[작품 5] # 5

크 기 : 350 × 200 × 2600mm

재 료 : 에폭시레진, 숟가락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식탐에 관한 욕구를 과장된 표현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나 억압된 감정을 풀어낸다. 다분히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물의 표현을 통해 식탐 또한 중독된 행위임을 말하고자 한다. 표현된 인물은 전체적으로 말라보이지만 과장된 복부를 통해 아무리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한 인물의 집착정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인물에 비해 과장된 숟가락은 집착된 행위를 돋보이게 작용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작품 6] # 6

[작품6] # 6

크 기 : 300 × 160 × 320mm

재 료 : 에폭시레진, 귀걸이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쇼핑을 마치고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중년 아줌마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작은 키에 모피 코트를 입은 부유한 집안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 표정은 약간은 거만하고 한가득 탐욕을 드러내며,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의 느낌을 담고 있다.

부담스럽게 짧은 인물의 모습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쇼핑이 잠깐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안식은 주지 못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해 본인은 명품에 대한 집착이나 병적인 쇼핑중독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며, 치유되어야하는 하나의 사회문제임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 7] # 7

[작품 7] # 7

크 기 : 620 × 120 × 380mm

재 료 : 에폭시 레진, 마우스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게임 중독에 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길게 늘어진 팔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충혈 된 눈으로 그 행위에 몰입하고 있다.

맨발로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속옷만 걸친 채 게임에 몰두 하는 모습이, 젊은 세대의 컴퓨터 게임의 몰입 정도를 보여 준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루의 절반이상을 보낸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들의 해방감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매체인 컴퓨터들 통해 위안 받고자 한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세계는 자신이 간섭받아야만 하는 학교와 집안에서의 부모형제와의 관계를 떠나 하나의 거대한 무법자의 권위를 허락받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단면을 통해 쉽게 친해질 수는 있고, 맘대로 조정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매체야말로 자신이 통제 가능할 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전제를 보이고자 하였다.



[작품 8] # 8

[작품 8] # 8

크 기 : 380 × 200 × 400mm

재 료 : 에폭시 레진, 링거 바늘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

이 작품은 마른 몸매에도 불구하고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다이어트에 중독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헬스클럽이나 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신이 너무 많이 살이 찼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체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영양결핍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작품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의 결핍정도를 마른 정도를 지나쳐 거의 뼈대만 앙상한 여성이 쓰러지더라도 영양제를 맞아가면서 뛰고 또 뛰는 애처로운 모습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9] # 9

[작품 9] # 9

크 기 : 110 × 260 × 260mm

재 료 : 에폭시 레진, 담배

제작년도 : 2005

제작방법 : 알루미늄 뼈대에 에폭시 레진 직조 후 채색

이 작품은 흡연 중독에 관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흡연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본인은 금연해야하는 공공화장실이라는 장소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타인을 의식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흡연하는 인물을 통해 담배에 찌든 듯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물의 주를 이루는 인상은 벗겨져 앙상한 머리와 상의에 걸친 와이셔츠 차림새로 단번에 이 인물이 회사나 공공기관의 중역정도임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통해 흡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레진위에 칠해진 은은한 색감은 인물의 자상함을 가장한 이중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Ⅲ. 결 론

일상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하루, 나날들을 말한다. 모든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 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을 소재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본능 적인 행위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살아온 스스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지에 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동기가 부여 되었다는 점이다. 늘 쫓기는 듯한 삶 속에서 조금만 멀리서 돌아보면 삶의 다른 즐거움과 밝은 면을 엿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실제 오브제의 사용, 축소된 인체, 레진의 사용, 직조 기법으로 인물과 기물의 표현, 채색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와 부합하는 여러 가지 표현 형식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작품이 가지는 주제와 동시대의 시대상을 개성을 통해 도출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인은 현재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에 가장 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일상적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본인의 특성과 개성을 잃지 않는 작업을 유지해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참고 문헌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과량. 박정자 역. 2005

장 보드리아르. 『소비의 사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임문영 역. 1998

볼프하르트 헥츠말, 콘라드러터. 『미학사전』 예경. 김진수 역 1998

아치 볼드하트. 『참을 수 없는 중독』 두란노. 은누리 회복사역본부 역.
2005

박원준. 『예술노트』 미술 문화. 1995

[http// naver.com](http://naver.com)

Abstract

Satirical studies for a life-form addiction from daily life

-Centering around My Work-

Dae-Soo Kim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nto what meaning it has to an artist to produce a work of art living in modern society. What will be made significant to me as a work?

A work of art which is not unrelated to actual life can be seen as being used as a medium of expressing personal general life and values.

Arguing the aesthetic values in daily life, Melvin Rader¹³⁾ said, "In a broad sense, art is everywhere in a daily life because what is aesthetic is one of the deep interests of human nature as seen everywhere."

13) Melvin Radar is in office as an honorar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Washington College. He wrote many books including A Modern Book of Esthetics. He was consecutively Chief of American Society and Chief of Pacific Branch in the society.

My work is based on dailiness. To modern people, dailiness has the bothsidedness of constituting a necessary element of continuing their lives and longing for escaping from the lives. I want to express the daily lives in satirical and contemplative ways, and observe a phase of our daily lives.

Chapter 1 Introduction presented the motive for which I produced a work and my perspective for it.

Chapter 2 Body defined the dailiness of modern life, examined the concept of life-type addiction in modern society, semantized the forms of the works related to it and explained the intention and process of producing the expressed works. It also described individual expressing methods for work explanations.

Chapter 3 Conclusion arranged the work dealing with the life-type addiction in daily life and described in what direction it would proceed in the future.